

# 한국여행사협회 초청 팸투어 성료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앞장

### 임실방문의 해 맞아 추진... 심민 군수, 주요관광지·사계절 축제 직접 설명 눈길

임실군이 2025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한국여행사협회 초청, 임실관광 팸투어 행사가 여행사 관계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은 지난 14일과 15일 동안 한국여행사협회 회원 60여 명을 초청하여 임실군 일원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임실군관광사협회 이운재 회장을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 등의 여행사 대표 60여 명이 참여했다.



임실군이 2025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한국여행사협회 초청, 임실관광 팸투어 행사가 여행사 관계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여행사협회 회원들은 임실 지역의 여행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전북 119안전체험관,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왕의 숲, 필봉농약전수관 등 대표 관광명소를 직접 둘러봤다.

특히, 지난 13일 준공된 윤암면 옥정호 한우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점 대표에게 전국 곳곳을 방문한 여행사의 눈으로 영업 노하우를 전달했다.

아울러, 관광지 답사 중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경에서 임실 관광 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심 민 임실군수가 임실군 관광홍보에 직접 PT 설명에 나서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심 군수는 "그동안 임실군은 관광에

는 불모지나 다름없었지만,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를 개발하면서 생활 인구가 2018년에 498만 명에서 지난해 888만 명을 달성하며 78%가 증가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꿈꿔왔던, 천만 관광 시대를 활짝 열고, 관광중심지로 우뚝 서겠다"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당부했다.

이어 "한국 관광의 별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는 여름에는 물놀이 즐길 수 있는 아쿠아 페스티벌과 가을에는, 전국에서 3대 최우수 축제로 영예를 안은 천만 송이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 겨울 크리스마스에는, 산타축제를 열고 있다"고 소개한 뒤 "내년 6월에는, 아름다운 유럽형 정미

원에서 잠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성대히 열어 전국 유일, 사계절 관광 축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명자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임실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민 군수는 "사계절 내내 특별한 매력이 있는 우리 임실군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광객들과 함께 자주 찾아가 주시면 좋겠다"며 "이번 팸투어 여행사 협회원들에게 임실군의 관광지를 알리고, 천만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송영 기자

###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산업 육성·활성화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이 2025년 바이오소재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번 추진은 바이오 연구개발(R&D)에서부터 기업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인력 양성, 건립 사업, 산업-학계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올해 △바이오소재 스타트업 건립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활성화 △관중응용연구 △디지털 정밀제조 △화학제품 기술연구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협회 프로젝트 △화학제품 기업 수출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바이오소재 스타트업 건립과 생태환경 기반 조성을 통해 인종·평가 체계를 특화하고, 데이터 기반 바이오소재 원료의 사업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활성화와 일환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추진하며, 관중 가공기술 및 메디푸드 제품개발, 바이오소재 성분 기반 재배 기술 및 공급 시스템 개발, 남원·지리산권 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 연구, 처방 설계 및 제형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출·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의 체계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3월부터는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강화하고, 유망 바이오기업과의 협력을 확대·지자체 및 정책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더욱 탄탄히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을 이어가며,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이영철 연구원장은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과 기반 조성,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연구원은 △지역특화 바이오소재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신성장 바이오소재 시스템 혁신 △유망 바이오기업 성장 거점 단지화 △남원 바이오산업 세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총 13억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0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00만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을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17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

남원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정차 단속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평일 단속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던 평일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해 60분 단축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단속 시간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을 확대 △평일 단속 시간 유예를 기존 5분~20분에서 20분으로 통일하여 시민의 혼선을 예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유예 없이 즉시로 단속,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7개 국산드론기체개발기업과 협약 체결

남원시는 17일, 남원시 노암동 노암산업단지내 디에프엘코퍼레이션(주)사에서 국토부 2025년 드론실증도시 사업의 참여기업인 디에프엘코퍼레이션(주)이 남원시 드론 산업의 발전에 상호협력을 위해 7개 국산드론기체개발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본격적인 K-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및 상용화를 위한 것으로, 협약식에는 디에프엘코퍼레이션(주)을 비롯한 DFL상용화에 앞장설 7개 국산드론기체개발기업(쥬블로랜드, (주)아스트로엑스, (주)오성기전, 에너테크인터내셔널(주), (주)에이엔피, (주)이오시스템, 탑스커뮤니케이션(주))이 참석하여 국

내 드론 산업의 발전과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남원 DLF 국제대회 개최,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내 드론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디에엘코퍼레이션(주)는 드론 전문기업으로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보건소,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 적극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봄철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스프링 피크(Spring Peak)'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를 자살 예방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 한다.

스프링 피크란 추운 겨울이 지나 봄(3월~5월)이 되면 일조량이 많아져 체내의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 변화로 인해 봄의 활력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대인에게는 우울과 불안은 감기와도 같다고 말한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Spring Peak) 기간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 서비스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마을안심서비스 운영)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우울증 선별검사 등 사후관리 △르고센터, 교량 부착형 표

찰 등을 활용한 자살예방 집중 교육 및 홍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을 연중 운영, 상담은 자살 예방 상담전화(전화109),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625-412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보건소 과주 치내안심과장은 "모든 시민이 자살 위기 상황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를 맞아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청정 순창의 봄맛 '순창 참두릅 여행'

#### 4월 18-19일 개최

청정 순창의 봄맛을 만끽할 수 있는 '순창 참두릅 여행' 행사가 오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일원에서 개최된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명품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는 양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시키고, 순창의 대표 농산품인 참두릅과 봄나물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양지교를 중심으로 천변 양쪽에 3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순창 참두릅과 봄나물 판매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참두릅과 봄나물의 향긋한 맛과 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행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아울러, 순창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가 열려 순창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두릅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순창군민의 날(4월 18일) 및 구곡순담 백세인 잔치와 함께 개최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